

# 일본 근대 여성작가들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 양상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와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문학을 중심으로 -

이 지 숙\*

(e-mail: aozora26@hanmail.net)

---

## 目 次

---

1. 서론
  2. 일본근대 여성문학과 <자기고백적> 글쓰기
  3.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의 『사랑의 쟁투(愛の争闘)』
    - 3-1. 기요코와 호메이의 「사랑의 쟁투」
    - 3-2. 다이쇼시대의 「사랑의 쟁투」
  4. 다무라 도시코의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
    - 4-1. ‘현모양처’이기를 강요당하는 여성
    - 4-2. 사랑의 신앙
  5. 결론
- 

## 1. 서론

일본 근대 여성소설에서 그려진 여성상은 사회가 기대하는 성 역할, 조화롭게 나아가는 여성, 즉 제도권 내에서 순종, 헌신하는 여성이 오랫동안 이상화되어져왔다. 이와 같은 여성상의 배후에는 에도(江戸)중기부터 메이지(明治)초기에 이르는 전통적인 일본여성의 교육인 「온나다이가쿠(女大学)」에 토대하며, 또한 삼종칠거와 메이지(明治) 민법이 규정한 현모양처가 그 근간을 이

---

\* 충남대학교 강사.

룬다. 일본의 근대초기에는 여성의 자아실현이 거부당한 채 천황중심의 국가체계에 순응하며 남성을 보조하며 부국강병에 수응하는 현모양처의 여성상이 강요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제도에 투항하며 여성 자아실현에 눈뜬 것은 여성작가들이었다. 1910년의 大逆事件이라는 사회적 어둠 속에서도 1911년 『세이토(靑鞆)』<sup>1)</sup>는 창간되었으며, 여성문학은 신여성(あたらしい女)의 출현과 더불어 남성중심의 문학사를 위협하는 신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 근대 여성작가들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 양상에 주목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그녀들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가라는 존재적이며 자의식적 질문에 기초하여 글을 쓰기 때문에 여성들의 글을 쓰는 행위는 남성과는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본고에서는 大正(다이쇼) 시대 여성작가인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와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여성작가의 『사랑의 쟁투(愛の争闘)』와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은 1915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당시 일본 신여성의 결혼이라는 공통의 테마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 고백> 양상을 통해 여성작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적 영역을 <글쓰기>로 형상화한 공통점이 나타난다.

## 2. 일본근대 여성문학과 <자기고백적> 글쓰기

사소설은 20세기 초 일본 자연주의를 모체로 성립한 문학 장르이다. 일본 자연주의는 진실의 충실한 재현과 노골적인 묘사를 선전 문구로 했다. 따라서 일본 자연주의는 사회와 차단된 좁은 공간에서 각자의 사생활을 그린다. 사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작가의 체험, 실제 내면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고백소설은 고백의 형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서술한 작품을 말하는데, 고백의 형식이란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는 일기, 편지, 독백, 유서 등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서 “일본 근대문학은 고백의 형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식이었고, 오히려 이 형식이 고백해야 할 <내면>을 만들어낸 것이다”라며 일본근대문학과 고백에 대해 언급했다. 고백이라는 형식

1) 『세이토(靑鞆)』의 시대는 연애 열기가 고조되는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었던 남성이 실제로는 여성의 억압자·지배자가 된다는 구조를 명확히 자각해 가는 시대였다.

栗原幸夫編(1997) 『文学史を読みかえる1 廢墟の可能性』, インパクト出版会, p.154.

2) 김성례(1992) 『또 하나의 문화 -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pp.123-125 참조.

또는 고백이라는 제도가 고백해야 할 내면 또는 <진정한 자기>를 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다.<sup>3)</sup> 여성작가의 고백 또한 가라타니의 말처럼 <진정한 자기>를 찾고 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경의 일본 문단은 자연주의 문학의 전성기였으며,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1907)를 기점으로 형성된 고백체 소설 양식은, 『세이토』 소설에 있어 여성자신의 「자신을 야기함(自己語)」라는 자기 고백적 글쓰기 형식으로 표출된다.

일본 최초의 여성 자유민권운동가인 기시다 도시코(岸田俊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양질의 교육과 폭넓은 견문에 의함이다.”(동포자매에게 고한다「同胞姉妹に告ぐ」)(1884)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시다의 지적처럼 여성은 ‘교육’과 사회적 ‘견문’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라는 협소한 생활 주변의 문제가 전부였던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체험을 낭만으로 구축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일상생활의 心情的 서술이, 그대로 문학으로 통용된 자연주의 문학의 전통이 『세이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시미즈 시킹(清水琴紫)의 「깨어진 반지(こわれ指輪)」(1891)는 1인칭 고백체 소설로, 여자의 뉘두리에 가까운 교훈적 생애 이야기이며, 남성들이 만든 ‘논리적인 말의 규칙’에 일치되지 않는 감정 표현의 호소가 많이 사용되어 있다. 여성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대 발전시킨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실참여의 의식이 엿보인다. 일본근대문학에서 <자기 고백적>인 요소가 강한 이유는 근대일본의 가부장제도, 또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그녀들은 <문학>을 통해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고백적> 요소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인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와 사타 이네코(佐多稲子)의 문학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5) 본고에서는 여성작가의 이러한 <자기 고백적> 요소를 다이쇼시대로 한정시

3)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지음 박유하 옮김(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pp.103-104.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이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성>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때까지의 일본 문학에서 나타난 성과는 완전히 다는 성, 억압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 성이 그려졌던 것이다. 이 새로움이 가타이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충격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주었다. 가타이는 <감추어둔 것>을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고백이라는 제도가 그러한 성을 찾아낸 것이다.)

4) 이지숙(2004) 「1910년대 일본여성소설의 여성적 글쓰기」 『신여성을 만나다』, 어문학사. pp.142-143.

5) 사타 이네코(佐多稲子)는 나가노 시게하루(中野重治)가 중심멤버인 「로마(驢馬)」 동인들과 만나면서 프롤레타리아운동에 참가하면서 <계급적 자각>에 눈뜨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성차별의 문제, 여성해방 사상에 진정으로 자각하는 시기는 「昭和10(1935)年前後」이다. 이시기부터 그녀의 문학은 夫權制와의 저항과 투쟁이 주요 테마가 되었다. 첫

켜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과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문학에서 <자기 고백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sup>6)</sup>의 「사랑의 쟁투(愛の争闘)」<sup>7)</sup>

장편 「잊꽃(くれない)」(1931-33)은 전향시대의 분위기가 반영된 문학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자전적 소설이다. 결혼제도 하에서의 성차별의 구조, 아내라는 자리 매김, 혁명을 지향하는 동지애적 부부에 있어서의 성역할의 지배를 비추어낸다.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 たい子)는 무정부주의적인 니힐리즘에서 점차 마르크스주의로 조금씩 다가섰고, 가슴속에 내재한 절망적이고 뜨거운 작가의 영혼 때문에 일찍부터 스콜라 철학 풍의 후쿠모토이즘을 불신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출세작 「시료실에서(施療室にて)」는 구로시마 덴지의 '눈썰매'와 함께 문예전선 1927년 9월 호에 발표되었다. 아나키스트 남편과 함께 조선과 만주를 방랑하다가 남편의 불경죄로 검거된 후 혼자 남아 이국땅의 시료실에서 아이를 사산했던 그녀의 경험에서 취해진 작품이다.

#### 6)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 1882-1920)

호메이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기요코는 『세이토』에 『오다카(お高)』(1911), 『마른 풀(枯草)』(1912), 『暗闘』(1912)등의 사소설풍 소설을 잇달아 게재한다.

두 사람은 1913년 결혼에 이르게 되나, 호메이의 여자문제로 위기를 맞게 된다. 기요코는 남편에게 동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호메이는 반대로 이혼청구 승낙소송으로 맞선다. 이런 와중에서 기요코는 호메이와의 만남과 이별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일기체 소설 『사랑의 투쟁(愛の争闘)』(1915)를 출판한다. 기요코는 호메이와 협의 이혼한 이후, 서양화가 엔도 다쓰노스케(遠藤達之助)와 연애하며 생계를 위해 꽃집을 경영한다. 호메이 사후 기요코는 『헤어진 남편 호메이씨의 죽음을 경악으로 접하며(別れたる夫泡鳴氏の死の驚愕を前におきて)』(1920)를 발표하는데 이는 뛰어난 호메이론이다. 호메이는 기요코와의 결혼생활 중에 생애 대표작 『五部作』을 완성시켰으며, 기요코 역시 호메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이토』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7) 이와노 기요코의 「사랑의 쟁투」는 나혜석의 「이혼고백장」과 상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나혜석은 화가로서, 작가로서의 삶에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놓은 여성작가이다. 예전에는 똑똑한 여자, 자기 뜻대로 산 여자는 '시대를 너무 앞서 갔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논리가 '정설'이었다. 이러한 사회 심리를 '나혜석 콤플렉스'라고 한다. 자기 시대의 지배 규범에 삶을 일치시키기를 거부한 여성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거나 정신병원에서 죽는다는 신화가 '나혜석 콤플렉스'이다. 나혜석은 말년에 가족과 헤어져 행로병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사회적 지탄을 한 몸에 받게 된 원인제공을 한 작품이 「이혼고백장」이다. 이 글은 『삼천리(三千里)』 1934년 8월호와 9월호에 연재된 것으로 나혜석이 이혼 후 남편 김우영에게 자신의 심경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나혜석은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 소감 및 조선사회의 인심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 「이혼고백서」의 고백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격당하자, 나혜석의 시선은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동화되는 것이다. 타인들의 규정에 따라 바뀐 고백의 방식은 애초 「이혼고백서」에서 보여주는 진보적인 고백 부분마저 사장시켜버리며 나혜석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나혜석의 「이혼고백장」과 이와노 기요코의 「사랑의 쟁투(愛の争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양상을 살

이와노 기요코는 신여성이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말에서 다이쇼(大正)기에 걸쳐 『세이토(靑鞆)』에 모인 여성작가들은 여성을 둘러싼 봉건적 인습에 반항하며 자기해방의 교습으로서 다채로운 연애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그녀들은 자신이 겪고 체험한 결혼생활을 소재로 작품을 남겼다. 『세이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는 이와노 호메이(岩野泡鳴)<sup>8)</sup>와 연애와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3-1. 기요코와 호메이의 「사랑의 쟁투」

이와노 기요코의 「사랑의 쟁투」는 1915년 11월에 발행된 작품으로 호메이와 기요코의 동거생활을 기록 고백한 일기이다. 이 서적이 간행되고 나서 한 달 후, 『신소설(新小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었다.

사랑의 쟁투. 이와노 기요코. 현재 코메구라(米倉) 서점에서 발행 중이다. 저자와 그 남편 호메이 씨와의 별거사건이 최근의 사회문제가 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본서는 기요코 씨와 호메이 씨와의 동거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그 발단은 단순한 친구관계에서 연애관계로 진전해 더욱이 영육일치의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마지막으로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게 될 때”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다. <sup>9)</sup>

이와 같은 글에 경쟁이라고 하듯이 「사랑의 쟁투」가 발표되기 한 달 전 호메이의 『남녀와 정절문제(男女と貞操問題)』가 신초사(新潮社)로부터 출판되었다. 『와세다문학(早稲田文学)』 2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

펴보고자 한다. 두 작가는 여성 작가라는 점, 작품보다는 사생활이 세간의 화제를 뿌린 점, 자유연애를 통해 구습에 대항한 공통점 등을 가지고 있다. 두 작가는 자신의 실제 상황을 고백했으며 자신을 모델로 소설을 쓰는 사소설의 원질을 이루며, 특히 그 고백이 의도적이며 의식적이었다는 점에서 당대 남성작가들의 고백체 소설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이상경(2000) 『나혜석 전집』 태학사, pp.46-50 참조.

8) 이와노 호메이(岩野泡鳴: 1873 - 1920)는 시인이자 소설가. 동시대의 문호인 모리 오가이(森鷗外)와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만큼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1909년에 발표한 소설 『담닉(耽溺)』으로 자연주의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자연주의 작가라고는 하지만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이나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정도의 평가는 받지 못한 채, 「神秘的 半獸主義」라는 독특한 개성에 의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 평생에 세 차레나 아내를 바꾸어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9) 尾形明子 (1985) 「岩野清子著 『愛の争闘』解説, 不二出版. p.1.

“용감하고 대담한 신도덕을 제창하자”라며, 호메이 씨, 그 부부의 별거문제에 대해 사실의 진상과 그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하며, 더욱이 통렬한 반격을 세상의 모든 비난자에게 가한다. 당당히 300페이지, 호메이 씨가 생각하는 남녀의 정조관 연애관 등이 빠짐없이 본 서적에서 엿볼 수 있다. 10)

기요코는 초등학교 교사와 오사카일보(大阪日報) 기자 일을 하면서 治安警察法 第五條 改正을 위해 청원운동(請願運動)에 참가한다. 한편, 기혼남 나카오 고지로(中尾五郎)와의 연애로 인해 투신자살 미수사건을 일으킨다. 그때 진퇴양난의 절망에 빠진 그녀 앞에 홀연히 나타난 것은 이와노 호메이(岩野泡鳴)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1911년 동거에 들어간다. 기요코는 호메이의 구혼을 거부하며, 동거는 해도 육체관계는 허락할 수 없다는 ‘영’ ‘육’ 문제를 스스로 실천한다. 기요코는 호메이의 두 번째 처로서 그와의 실험적인 동거생활부터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3년 후 호메이는 「폴타크 영웅전」 번역 때문에 고용한 대필기자 간바라 하나에(蒲原栄枝)와 관계를 갖게 되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sup>11)</sup> 이 작품은 집을 나가려고 하는 호메이를 상대로 기요코가 「동거청구」 재판을 일으키며 그런 와중에 출판된 것이다.

기요코는 「사랑의 쟁투」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 작품을 쓰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메이지(明治)42년 12월 9일부터 44년 5월까지와, 호메이씨의 연애 고백이 있던 다이쇼 4년 7월 20일부터 별거에 이르게 된 8월 9일까지의 일기”이며 “이 일기는 그 발단으로부터 단순한 친구사이로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해 더욱이 영육일치의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마지막으로 혼자의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나의 적나라한 고백”으로 “적나라한 고백을 던져 나의 유치하고 얽은 생각을 대중 앞에 드러내어 비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나의 발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sup>12)</sup> 이 책의 서문을 쓴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는 “당신의 별거사건이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여러 사람에게 의해 의논되고 있는 요즘, 결국 이러한 별거로 결말을 내린 당신의 공동생활의 악전고투의 기념이라 할 일기가 발표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성의 문제 -연애 자상 결혼문제 -를 부인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연구하며 해결하려했었다.” 라며 기요코에게 동정을 보내고 있다.

호메이와 기요코는 성교섭을 갖지 않는 동거생활을 시작했지만 「万朝報」에서는 ‘육체가 이길까 정신이 이길까(肉が勝つか靈が勝つか)’라는 표제로 기사화

10) 尾形明子 (1985) 앞의 글, p.2.

11) 다나카 준 지음 임명수 옮김 (2012) 『근대 일본의 문단 연애사』, p.158.

12) 岩野清子 (1985) 『愛の争闘』, 不二出版.

해 보도했다. “남자는 『탐닉耽溺』의 저자 반수주의(半獸主義)의 실행자인 이와노 호메이, 여자는 고쿠후리츠(国府律)事件으로 이름을 떨친 여권확장론자인 엔도 기요코(遠藤清子)”라는 기사를 실었다. 서로를 잘 모르는 남녀의 성급한 동거가 경솔하다는 혹평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기요코는 ‘내 영혼이 이와노씨를 사랑할 때까지 육체를 허락할 수 없다(私の靈が岩野氏を愛する時まで肉を許せない)’라는 연애 결혼관을 관철한다.

### 3-2. 다이쇼시대의 「사랑의 쟁투」

이 작품이 쓰여 졌던 일본의 다이쇼시대(1912-26)는 담론공간에서 성욕과 연애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의 『近代의 戀愛觀』(1921년 오사카, 도쿄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후 1922년 간행됨)에서는 문학, 사상적 견지에서 연애지상주의를 내세웠으며, 이시하라 준(石原純)의 『戀愛價值觀』(1925)에서는 통속성 과학의 분야에서 성욕의 순수한 가치를 설파하며 영육일치를 주장하였다. 이 두 저서는 모두 다이쇼기의 연애지상주의와 영육일치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생물로서의 순수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으나 인격을 중시함으로서 연애와 성욕의 합일을 이상으로 한다는 점, 인격을 유린하는 매춘 등을 부정함으로서 근대적인 성도덕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3)</sup> 당시 일본 여성문학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엘렌 케이<sup>14)</sup>의 사상이나, 입센 등의 자유연애론이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너나없이 연애를 논하기 시작해, 바로 ‘연애론 붐’이 도래했다. 여기서 다이쇼 시기에 세간의 주목을 끈 연애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이쇼 원년(1912)에는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가 유부녀와 간통한 죄로 감옥에 가고, 처자가 있는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와 마쓰이 스마코(松井須摩子)<sup>15)</sup>의 연애가 스캔들이 되었다.

13) 신지숙(2004) 「다이쇼(大正) 시대 소설 속의 남성의 정의식」, 『日本學報』 vol 60, 韓國日本學會. p.13

14) 엘렌 케이는 누구보다도 빨리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고 여성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당시 그녀가 주장했던 연애의 새로운 윤리관은 삶의 표현의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개인의 행복은 이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윤리적 기준은 개인을 통하여 보다 높은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애의 도덕론은 영혼과 육체의 합일의 경지를 주장한다.

최혜실(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었는가』, 생각의 나무. pp.145-150 참조.

15) 1911년 9월 츠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文芸協會에 의해 여성해방을 제기한 근대극인 입센의 「인형의 집(人形の家)」이 상연되었고, 다음 해에는 같은 文芸協會에 의해 마쓰이 스마코(松井須摩子)가 주연한 「故郷」이 상연되었다.

다이쇼 4년(1915)에는 애인이 생겨 이혼을 요구하는 이와노 호메이와 그의 처 이와노 기요코 사이에 소송을 포함한 싸움이 벌어졌다. 오스키 사카에(大杉榮)는 처 야스코(保子)와 애인인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 이토 노예(伊藤野枝)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자유연애를 주창했는데, 다이쇼 5년(1916)에 애인인 가미치카 치치코에게 칼을 맞은 히카게차야(日陰茶屋) 사건이 일어나, 자유연애는 파국을 맞이했다. 16) 다이쇼 시기는 동반자살과 간통 등 많은 연애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어 세간의 이목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 4. 다무라 도시코<sup>17)</sup>의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sup>18)</sup>

『그녀의 생활』(1915)은 강한 자아의식을 지닌 신여성 마사코(優子)와 신남성 닛타(新田)의 사랑과 결혼을 통해 다무라 도시코의 중심테마였던 ‘남녀양성의 상극(男女兩性の相克)’을 선명히 그려낸 작품이다. ‘아내를 억압하는 남편과의 상극을 통해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의 모순을 고발’<sup>19)</sup>하고 있는 이 작품은, 근대 일본 여성 해방 문학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16) 다자키 히데아키 역음 김경자 옮김(2006)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삼인. pp.139-140.

17) 다무라 도시코(1884-1945)

동경 아사쿠사淺草 출생. 1900년 부립제일고등여학교 府立第一高等女学校를 졸업하고 1901년 일본여자대학日本女子大学 국문과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소설가의 뜻을 품고 고다 로향幸田露伴의 문하에 들어가 제일작 『쓰유와케고로모(露分衣)』를 발표해 호평을 얻었고 자기표현의 방법으로서 여배우를 지향해 무대에 서기도 한다. 1909년 고다 로향의 문하생인 다무라 쇼교(田村松魚)와 결혼한다. 궁핍한 생활 속에서 남편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쓰게 된 소설 『체념(あきらめ)』(1910)이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현상소설에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한다. 1911년 창간된 『세이토』에 발표한 『생혈(生血)』 이후 1915년까지, 『맹세(誓言)』 『여성작가(女作者)』 『미이라의 립스틱(木乃伊の口紅)』 『포락지형(泡烙の刑)』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이 소설들은 도시코와 쇼교의 결혼생활이 소재가 된 자전적 소설이다. 또한 관능과 ‘남녀 양성의 상극’을 테마로 한 탐미적 작품을 통해 도시코는 일약 인기작가로 성공을 거둔다.

18) 본고에서 인용한 『그녀의 생활』의 텍스트는 『田村俊子作品集』第一卷(1987),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이다. 『그녀의 생활』은 나혜석의 「경희」(1918)와 비교 고찰할 점이 많다. 나혜석의 소설 「경희」는 그의 평론 「이상적부인」(1914)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나혜석은 세간에 떠돌던 신여성에 대한 혐담을 불식시키고 자의식에 눈뜨고 평등이념을 실천하려 한 긍정적 신여성상을 형상화한다. 구여성과 대립하는 경희가 직접적으로 전면에 서거나, 노골적인 설교투를 피하고 구체적인 일상을 통해 신여성상을 구현해 나간다.

안혜련(2004) 「가부장제의 거부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 『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pp.112-113.

19) 안노 마사히데(2004) 「일본여성문학에 나타난 타자성 극복양상」 『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p.301.



자유연애에 의한 만남과 사랑, 혁신적이고도 이상적인 결혼관에 의해 출발했던 주인공들은 당시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부했던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은 결혼 후 ‘가사’와 ‘육아’라는 현실의 “생활” 속에서 서서히 소멸되어 간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들 역시 기존의 인습과 젠더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사코는 가사와 육아, 남편의 질투 등 불합리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이라는 관념을 통해 홀로 희생을 자원하고 있다.

작품 속에는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신여성, 신남성이었던 그들이 결국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이들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던 마사코의 ‘사랑의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결혼생활의 궤적 속에서 굳건한 신념을 관철하지 못하고 현실 수용과 타협이라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인공들의 모습, 특히 단독자로 살아가길 염원했으나 결국 결혼제도 안에서 변질되어 가는 신여성의 자아라는 설정을 통해 도시코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 속에 나타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모습과, ‘사랑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4-1. ‘현모양처’이기를 강요당하는 여성

마사코의 남편 닛타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드물게 여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결혼 초에는 집안 일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 “자신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집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마사코의 인내와 희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사코와의 고통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는 “마사코의 그 씩씩한 신념에 마음을 놓고 얼굴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그저 잠자코 안심할 수밖에 없었다.” 등 무리하고 있는 마사코를 뻔히 알면서도 그녀의 희생에 기대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마사코를 보는 것보다 아내다운 감정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마사코에게 한층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아내의 예술적 연인으로 만난 이성친구들에게 질투를 하여 그녀의 친구관계를 끊어 버리는 등, 어쩔 수 없는 가부장적 남성의 모습을 드러낸다.

한편 누구보다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신여성 마사코는 힘든 결혼 생활에 지쳐만 간다. 미혼 시절, 결혼 생활을 바라볼 때 마사코의 눈에는 “여

자의 굴욕”만이 보였다. 여자들은 모두 “자신이라는 존재를 상실한 망령”과도 같았고, 그들의 “심장은 남편과 아이로 인해 압축되어” 마치 “쓰레기로 꽂 막힌 하수구처럼 혼탁해져서 정지”해 있을 뿐이다. 누구보다도 평생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갈망했던 마사코는 “남자의 이기심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런 마사코의 모습에서 남편과 아이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삶, 즉 이상적인 여성의 삶으로 여겨지던 현모양처 사상에 대한 강한 비판과 거부를 볼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이미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닛타와 사랑에 빠지고 청혼을 받은 그녀는 괴롭기만 하다. 닛타는 결혼을 거부하는 마사코에게 그녀의 “독립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며,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 주겠다”고 한다. “세상의 보통 부부관계”와는 다른 이상적이고도 “정신적인 결혼” 생활을 약속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사코와 닛타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로서 서로의 자유와 의지를 인정해주는 이상적인 결혼관에 기반하여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가사일로 인해 둘은 바로 가정부를 구해야만 했다. 가사일의 “전부를 마사코가 혼자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닛타도 처음엔 마사코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스스로 마사코를 도와주었지만 이내 가사에 질려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회피하게 된다. 결국 가사는 그에게 있어 “여자의 잡무”였고 자신 “본래의 직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와 달리 마사코는 남편에 대한 이해와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세세히 주의를 쏟는 일을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고, 오히려 남편을 위한 일에 점점 더 예민해져 간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점점 결혼에 의해 속박되어 가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점점 괴로워진다. 하지만 역시 남편의 의복과 식사 등, 남편을 위한 “세세한 주의력을 항상 스스로 그만둘 수 없었”기에 그녀의 고통은 가중되기만 할 뿐이다.

닛타는 이런 마사코를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마사코보다는 “자신을 위한 호의와 동정”, 즉 “아내다운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전력으로 헌신하는 마사코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아내다운 상냥함과 조바심과 섬세한 주의로 집안일에 매진하는” 마사코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마사코 역시 “선량한 아내”로서의 자신을 더욱 기뻐하는 닛타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생활에 실망하면서도, 닛타를 만족시키는 선량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아양”이 어느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퍼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무서운 타협의 시작”이었다. 게다가 마사코는 그를 위해 조금씩 자신의 삶과 감정, 인간관계까지도 희생하게 되며,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아할

까”하고 끊임없이 안절부절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닛타는 처음에 그녀를 “가정주부”로서 원한 것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결국 가사는 자연스레 전적으로 마사코의 몫이 되었고, 마사코도 그 상황을 별다른 거부없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시적인 합의 과정 없이 ‘가사는 여성(아내)의 몫’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라 성별 역할분담이 암묵적으로 자연스레 이뤄진 것이다.

‘가사’라는 장벽을 겨우 넘고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 마사코에게 임신과 육아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임신 사실을 안 그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에 절규한다. 이제는 “선량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며, 또한 자신의 생활에 ‘아내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책임”까지 부가되어 일생을 남편과 아기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에 절망했던 것이다. 그녀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자연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리고 아기의 태동을 통해 “결국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자각”한다. 좀처럼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마사코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에 보내자고 닛타에게 말한다. 자신에게는 “아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마사코는 ‘현모’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에게 어머니의 책임이라든가 희생 따위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녀는 잠시라도 아이를 다른 이에게 안기는 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의 경우처럼, 아기에 대한 배려와 주의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을 정도가 되어 충실히 ‘현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마침내 그녀는 많은 가사일과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더 많은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생활은 “필연적인 여자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만으로 그 묶여있는 포승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련한 생활”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이와 남편에 대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권리와 금지를 느끼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처음 마사코는 자아 해방을 추구하며 “여자의 굴욕”만이 가득한 결혼 생활, 즉 고정화된 사회 통념을 거부했다. 그러나 결혼생활 속에서 이 사회 통념을 결국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타협하여 ‘현모양처’의 역할을 스스로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 4-2. 사랑의 신앙

마사코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삶과 예술, 자유였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 문제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하고,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 홀로 고군분투하던 그녀에게 자신의 생활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는 깨달음이 한 줄기 빛처럼

럼 찾아온다. 그러나 마사코에게 일종의 구원을 허락해 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녀가 느끼듯 정말로 순수하며 고귀한 사랑일까.

결혼 전, “사랑이라는 비겁한 구실 때문에 결혼의 뒷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던 마사코였다. 그러나 연인 닛타의 구혼에 그녀는 “생각도 못한 사랑과 결혼의 일치”에 괴로워하게 되고, 결혼을 원하는 남자의 의지에 “남자의 비겁함과 추악함”까지 느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위해 사랑을 버릴 수 없었던 그녀는 닛타와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후, 가사로 인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는 부부의 사랑마저 “무겁고 괴로운 짐”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이 아무래도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그것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생활의 사실”임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닛타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자신의 고통과 상관없이 남편에게 헌신을 다하도록 종용한다. 이러한 ‘자기모순’의 상태에 빠져 버린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남편 속에서 찾으려 하는 자신에게 비굴함과 혐오감마저 느낀다. 즉 “사랑”은 “자기혐오”로 귀착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남자에게 속박되어 가는 고통에 압도당하여 견딜 수 없게 된 마사코를 구원해 준 것은 “현재의 생활의 전체는 사랑”이며, “그 사랑에 따라 넓고 크게 살아가는 것이 현재 생활에 있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굳게 자신의 영혼으로 붙잡으려” 애쓰는 마사코는 “사랑의 생활은 순결하고 행복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사랑과 결혼 생활을 스스로 일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생활의 모든 의미는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전에는 남자를 위해 치장하는 자신에게 비굴함을 느꼈지만, 남자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가꾸게 한 것이며, 집안일도 남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일종이라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안정을 되찾는다. 게다가 가사로 괴로워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성친구의 방문을 싫어하는 남편의 질투에 증오심을 느끼면서도, “질투를 억제할 수 없는 남자의 고통”에 동정하는 그녀는 넓은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어쨌든 이 “사랑의 신앙에 매달려” “모든 불만과 부족함을 쫓아내려” 애쓴 마사코로 인해 그들은 한동안 행복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적인 남자의 사랑의 태도”로 인해 끊임없이 불쾌감을 느끼던 그녀의 “사랑의 신앙은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마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사랑의 신앙을 지키려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자신이 포용”해야만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생활의 의의를 사랑에서 찾는 일은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느낀다. 또한 “사랑의 믿음이라는 애매한 교리적인

이름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박약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생각하게 된다. 이제 둘의 결혼 생활에는 처음 그들이 생각했던 영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의미가 상실된 채, 그저 육체의 결합이라는 “동물적인 사랑”만이 남아 있다.

이 사랑의 신앙은 임신과 육아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한 그녀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안 마사코는 여자의 자연적인 운명을 저주했지만, 출산 후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사랑”에 매료된다. 그러나 그녀 영혼 속의 “야심”은 현재의 생활에 그녀를 만족할 수 없게 만들고, 그녀는 다시금 고통에 빠진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중 삼중의 생활을 등분하여 조화시키고, 구분 짓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육아와 가사일 속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창작활동을 펼쳐간다. 그것은 매우 힘든 “비참한 생활, 동정할만한 생활”이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아이와 남편,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신의 생활의 힘은 사랑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신이 지금 터득한 한 차원 높은 사랑은 “광대무변(廣大無邊)”하며, 자신은 그 사랑의 “화신”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녀는 기쁨에 넘친다.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 이루어진 마사코와 닛타의 관계는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기존의 가치관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만다. 신여성적인 태도로 이상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던 마사코 역시 현실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아내로서의 삶에 만족해나가는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에 타협해가며 스스로의 사회적 활동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창작활동을 해내었다는 만족감보다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여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성의 자아확립에 대하여 외치고는 있으나 여성의 의무라는 한계점에는 벗어날 수 없는 마사코의 모습을 통하여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가지는 한계와 의무가 어느 한 시대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일본근대여성문학의 흐름과 더불어 이와노 기요코와 다무라 도시코 문학의 <자기고백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근대 여성문학은 사소설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 놓여있는 『세이토』에 게재된 소설들은

대부분 고백체 사소설이다. 또한 다이쇼시대에는 격변하는 시대흐름과는 무관하게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소설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성작가들은 자신의 불합리한 삶을 문학작품을 통해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려 하였다. 이와노 기요코는 남성과 여성의 영·육의 결합을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로 제시한다. 봉건적인 결혼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인격적 만남을 토대로 감정과 육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여성 작가들이 영육일치의 사랑을 주장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노 기요코의 『사랑의 쟁투』는 연애로부터 이혼까지의 내력과 자신들의 생각을 상세히 담은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고백>의 형태로 서술되어져 있다.

강한 주체 의식을 지닌 『그녀의 생활』의 여주인공 마사코의 눈에 비친 모순된 결혼 생활의 모습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은 철저히 여성의 희생과 부담위에서 성립하고 유지되고 있었다. 진보적인 자아의식을 소유하고 남녀가 평등한 이상적 결혼을 추구했던 신여성, 신남성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현모양처 사상에 속박되어 한계를 보이고 만다는 설정을 통해, 기존의 젠더 관념과 이를 형성한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두 작품은 가부장제 하의 여성의 결혼생활과 사랑, 성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회에서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데에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시미즈 시킹(清水琴紫)로 시작되는 일본의 근대여성작가들은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성의 불운한 처지를 극복하려 한다. 즉 여성작가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는 가부장 사회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실상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서 주체로서의 여성의 자아를 이끌어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 【参考文献】

- 栗原幸夫編(1997) 『文学史を読みかえる1 廃墟の可能性』, インパクト出版会. p.154.  
十川信介(2008) 『近代日本文学案内』, 岩波書店. p.20  
岩野清子 (1985) 『愛の争闘』, 不二出版.  
이상경(2000) 『나혜석 전집』, 태학사. pp.46-50 참조.  
김성례(1992) 『또 하나의 문화 -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pp.123-125.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지음 박유하 옮김(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pp.103-104.  
김은희·안혜련·이지숙·최은정·안노 마사히데(2004) 『신여성을 만나다』 새미  
pp.142-143.  
이지숙 (2009) 『일본근대여성문학 연구』, 어문학사.  
히라노 겐 지음 고재석 ·김환기 옮김 (2001) 『일본 쇼와 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p.159-p.160.  
다나카 준 지음 임명수 옮김 (2012) 『근대 일본의 문단 연애사』, p.158.  
신지숙(2004) 「다이쇼(大正) 시대 소설 속의 남성의 정의식」, 『日本学報』 vol  
60. 韓国日本学会.p.13.  
이중텐 지음 홍광훈 옮김(2008) 『중국남녀 옛보기』, 에버리치 홀딩스.

## 要 旨

本稿は大正時代を中心として、岩野清子と田村俊子の作品の中で現れている〈自己告白〉について分析してみた。田村俊子は近代日本で最初の女性による女性のための文芸誌、と言われる『青鞥』に創刊号から参加していた。一方、岩野清子も「青鞥」の周辺作家でもあり、創刊当時から雑誌の編集と作品を投稿してきた。最近、韓国で行われている、これまでの日本の文学史において、漱石、鴎外など、男性作家達の作品を中心にして評価されてきたのを見直そうというのが主流である。それは、男性中心の価値観、ジェンダーで固定された認識に起因する可能性のある評価基準でもある。でも、本稿では今までなかで〈名作〉と評価されていなかった女性作家の作品に注目し、その文学的な価値を与えることと共に作品に現われている女性たちの〈現実〉を見直してみた。女性作家らは、〈告白の語り〉の形で自分の内面を叙述する場合が多い。女性作家らは、〈自己語り〉を通して、〈飾りない自己〉を追い求めている。

岩野清子と田村俊子の作品の場合、男性中心の現実を見直し、男女差別の本質を探っている。岩野清子は小説家岩野泡鳴と結婚していたが、泡鳴が愛人を作って、別居に至る。しかし、驚くべきことに清子は夫に対し同居請求を起こしたのである。実生活をみてもわかるように、清子の「愛の争闘」には、彼女自身の「戦う姿勢」を明確に示していると言えよう。

『彼女の生活』は「両性の相剋」という当時の「新しい女」にとって最も切実なテーマを提起したものとして、女性を窒息させる結婚制度を取り上げている。本稿においては、『青鞥』をめぐる一見雑多な人々の意識の中に浮かび上がってきた時代的課題としての、「結婚制度」という観点から田村俊子の『彼女の生活』を取り上げてみる。女性作家における〈自己告白〉とは、独特な文体と形式の問題ではなくて、女性らの現実の抑圧に抵抗し、解放を追い求めるプロセスのなかで浮上してくる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戦略〉として考えられるのではないか。

キーワード：女性文学 自己告白 青鞥 岩野清子 田村俊子

투 고 : 2013. 8. 31  
1차 심사 : 2013. 9. 14  
2차 심사 : 2013. 10. 5